**회개할 때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것 /리차드 백스터**

****

† 회개할 때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는 것

만일 여러분이 회개했을 때,

잃어버리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친구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성령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모든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확고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한 친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친구들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유혹할 뿐,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 얻은 친구는 여러분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서

자신의 영원한 안식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쾌락거리입니까?

여러분은 일단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롬 14:17)보다

어리석은 운동 경기와 오락거리로 시간을 보내고, 육체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때때로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두려움과 함께 끝이 나고,

악취와 함께 사라져 버렸을 때,

성도들의 즐거움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거룩한 생활은 슬픈 것처럼 여겨지고,

죄짓는 생활은 더 즐거운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세속적이고 거룩해지지 않은 본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면 성령께서 새로운 본성과 성향을 주셔서,

지금처럼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보다는 죄를 버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즐거움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이 참으로 복된 생활인지를 몰랐고,

하나님과 거룩함이 나의 기쁨이 되기까지는

결코 나에게 행복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지은 “회심” 중에서...)